



SARANG

## 시론 02

전통친수공간을 모방한 설계기법

## 기고문 03

인물 사진을 요구하는 건축행정,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건축사, 공공의 전문가인가 아니면 행정의 소모품인가

## 전북 지역 뉴스 04-05

전북 익산건축사협회,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 전달  
전북 진안군 건축사모임, 진안사랑장학재단 기부금 400만원 전달  
전북 남원지역건축사회,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성금 200만원 기탁

## 광주 지역 뉴스 06-07

광주건축사회 자문위원회, 일본 가고시마 방문  
광주건축사회 2026년 감사선거 예비후보자 공고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고시 안내

## 전남 지역 뉴스 08-09

전남건축사회, 365에이스 치과 진료협력병원 업무협약 체결  
전남건축사회, 전라남도과 재난피해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 체결  
목포지역건축사회- 목포대학교 RISE사업단 업무협약식

## 독자광장 10

한 편의 시 \_ 봄날은 저만치  
한 장의 사진 \_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책 소개 \_ 건축은 어떻게 아픔을 기억하는가

## 설계경기 11

보성읍 다함께 상생센터 건립사업 건축 설계공모 공고

## 건축사 인터뷰 12

과하지 않게, 오래 남게 - 일상에 스며드는 건축을 향해 \_ 박형주 건축사 / 사월 건축사사무소



# 건축문화 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6.2월호(195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 강필서, 이경일, 이성열  
전라남도건축사회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 전통친수공간을 모방한 설계기법



정종민 논설위원

명인 건축사사무소 대표  
(전남 순천)  
myarc3500@hanmail.net

- 1997 개업 - 현재 국립 순천대 석사, 박사수료 창원 경남대학교, 순천 청암대학교 겸임 교수, 출강
- 전국 사찰, 고택, 향교, 관아를 15여 년 간 300여 곳 답사함
- 국립 순천대 평생교육원 에서 한국학, 전통문화 탐방지도사 과목을 강의
- 전남도 한옥자문위원, 순천시축제위원회 위원, 도시재생전문위원
- 논문 : 건축기획방법론에 대한 연구(2002, 순천대)
- 저서 : 『좋은한옥』 (2012, 전남도청 공저) 『다시읽는 순천인문학』 (2018, 늘보기학)

물은 우주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만큼, 전통건축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옛날에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주로 여름용으로 풍경을 감상하기 위한 누정이 발달했다. 자연조건이 좋아 산이 조금만 높아도 계곡에 항상 물이 흘렀다. 이 물을 활용한 건축들이 결과적으로 건물과 물 그리고 사람과의 조화를 만들어냈다. 이것이 친수공간이고 전통정원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물은 자연과 사람의 진액이다. 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산은 음으로, 물은 양으로 규정했다. 산과 물을 음과 양으로 정하여 하나의 결합체로 만들었지 않나싶다. 중국명나라시대 풍수지리를 정리해 놓은 『인자수지』에 보면 “물은 인간의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요소이며, 만물의 조종(祖宗)이고 천지간에 가장 많음으로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여 물을 중요하게 여겼다. 물이 있고 없음에 따라 사람의 주거형태가 변했다고 말한다.

산수화는 산과 물을 중심으로 그리되 사람을 그 공간속에 넣어 강조했다. 그러므로 따지고 보면 산과 물이 중심인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이 중심을 이룬다. 천·인·지·수 중에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노자의 『도덕경』에 ‘상선약수(上善若水)’란 사자성어가 나온다. 이 책에서 “물은 겸손하고 유연하며 막히면 돌아가고 항상 낮은 자리에 머물러 세상의 모범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따라서 ‘최고의 선은 물이다.’라는 뜻이다. 물은 십장생(十長生) 중에서 영원한 생명을 상징한다. 지구상에서 물이 없으면 생명력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간적이고 경관적인 주된 요소가 물인 셈이다. 물의 장점이나 의미를 나열해 보면,

첫째는 한자의 산(山)과 수(水)는 3획으로써 3이라는 숫자와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이 3자는 만물의 근원이 되는 가장 신성한 숫자로서 완성이란 뜻을 함축한다. 삼신은 천신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것이 삼신사상 즉 동북아시아의 텡그리(천신)사상이다.

둘째로 다른 경관요소들, 돌이나 나무, 그리고 다리나 정자 등과 같이 어우러질 때 매개체는 물론, 중성자적 역할을 해준다. 경직된 주위환경을 부드럽게 해주고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힌다.

셋째는 시각적이면서도 청각적인 효과다. 시각적인 효과로는 수면에 비치는 구름의 변화, 석양의 해 그림자, 수목, 건물 등의 묘용으로 수면에서의 영상이 달라 보인다. 그 그림자를 봄으로써 이상향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청각적 효과로는 흐르는 물소리로 인하여 울동적인 요소가 생동감을 준다. 따라서 전통정원에서 흐르는 물은 필수다.

넷째는 집안의 소화수 역할과 습도와 온도조절이다. 이것은 물의 기능이다. 고택들을 답사하다 보면 대문 앞이나 마당 또는 주위에 지당(연못)이 있는 곳이 많다. 보통 사각연못의 중앙에 섬이 있는데,

동양사상에서 기본적인 천원지방(天圓地方)이라는 사상이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라는 사상이다. 물과 산의 조화사상에 근거하여 중앙에 삼신산(三神山)인 섬을 만든다. 이것이 도교의 신선사상이다. 성리학의 기본사상에는 유·불·도가 깔렸다. 유가(유)에 불가와 도가를 통섭하고 성찰한 것이 주자학(주)이요, 성리학이다.

집 앞에 멀리 보이는 조산이 오행 중 뾰족뾰족한 화(火)의 형상으로 생긴 산이면 대부분 지당(池塘, 연못)을 만들었다. 불의 기운을 물로 누른다는 벽사(辟邪)적인 의미이다. 따라서 연못은 집에 불이 났을 때 소화수(水)로 썼다. 일례로 4대문 중 송례문 앞에 큰 연못이 있었다고 한다. 그 이유가 참 재미있다. 관악산이 화의 형상이기 때문에 4대문 안에 화기가 많아 화재가 잦으므로 화기를 누르려고 연못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런 행위를 현대에 와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전통건축이나 현대건축에서도 건조하고 추운 겨울철 집에 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습도조절이 된다. 현대건축에서는 주로 개울이나 분수를 설치했다. 무더운 여름, 물은 뜨거운 열기를 만나면 증발하면서 주위 온도는 내려간다. 기압차로 인하여 시원한 바람이 생긴다. 자연을 활용하고 순응하면서 살았다는 증거다. 친수공간을 건물과 어울려 조성하는 것은 결국 사람에게 이롭게 하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이다.

건축에서 친수공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천이나 바다에서 증발한 수분은 변화되어 비가 내린다. 끊임없는 자연의 순환이다. 이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생명수가 된다. 물은 생명수이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자연스럽게 흘러 내려오는 물을 활용하여 집을 꾸미거나, 인공으로 물을 끌어들이었다. 물을 끌어들이다 보니 수재에도 취약했다. 그럼에도 자연과 더불어 살아왔으며, 적응하고 살아가려는 선조들의 지혜가 놀랍다. 우리는 그 지혜를 배워야겠다.

현대건축에서도 조경을 할 때 친수공간을 사용한 예는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도심의 공간에서 물을 활용하려면 흐르는 물이 있어야하는데 대부분 없다. 그렇다고 비싼 수도물을 쓸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므로 지하수개발이 필수다. 그래서 친수공간이 드물다. 그렇다 하더라도 도심한옥이나 넓은 마당공간에 인공으로 물을 흐르게 하면, 정서적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즘 대단위 아파트 공간에 조그만 개울을 만들어 놓은 곳을 보았다. 아주 신선하고 차분한 조경공간성을 느낀다. 선조들이 한 것처럼 우리건축사들도 한옥이나 대단위 공간에 조경계획을 할 때 친수공간을 넣어 활용해 보면 어떨까? 물론 적용하고 있는 건축사도 있겠지만. 그럼으로써 그 곳이 습도와 온도조절의 기능과 함께, 쉼터가 서정적인 친수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다.

##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강필서, 이경일, 이성열  
 편집인: 허만수  
 부편집인: 장기섭, 임현정, 육광돈  
 자문위원: 서재형, 정명환, 강동영, 박종호, 박주현, 임태형  
 전담기자: 김종문  
 편집위원: 정영진, 김미리, 김종원, 강성구, 최기성, 설혜순, 오선화,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6

## 광고 및 이메일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500,000원
- 하단광고 : 250,000원
- 하단1/2광고 : 150,000원
- 구독료 : 무료
- 구독신청 방법 : 성명, 이메일 주소 작성 후 gjkira@empas.com 발송

##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원부터
- 후원방식 :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  
 원고마감 : 매달 5일  
 문의 :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6 / gjkira@empas.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 기고문 \_ 이상갑 건축사 / 이데아 건축사사무소

최근 국토교통부는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 시 업무대행 건축사가 해당 건축물과 함께 촬영된 전경사진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규정한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개정해, 해당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대해 건축계 전반에서 강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 인물 사진을 요구하는 건축행정,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건축물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사서 작성 시 사용승인 조사·검사자와 검사 대상 건축물이 함께 나타난 전경사진을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6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국가가 공인한 건축사의 전문성과 직무 윤리를 근본적으로 불신하는 발상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하고 부당한 행정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17조는 사생활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얼굴을 포함한 신체 정보는 대표적인 민감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이라는 '객체'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행정 절차에 건축사라는 '주체'의 인물 사진을 강제로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전문가를 행정의 협력자가 아닌 감시의 대상으로 전제하는 것으로, 국가 자격자를 잠재적 위반자로 취급하는 인권 침해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건축법」과 「건축사법」에는 자격 대여나 허위 보고, 대리 검사 등에 대해 자격 취소, 업무 정지, 형사 처벌 등 매우 강력한 사후 제재 수단이 이미 마련돼 있다. 현장 방문 여부 확인이 목적이라면 촬영 일시와 위치 정보가 포함된 현장 사진이나 건축물 주요 부위의 상세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물 촬영을 의무화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상실한 전형적인 과잉 규제다.

또한 이 제도는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의사에게 수술 현장 인증사진을 요구하지 않으며, 변호사나 회계사에게도 직무 수행을 증명하기 위한 인물 사진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유독 건축사에게만 이러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 자격제도의 근간인 기명날인과 서명의 법적 효력을 행정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건축사 집단 전체를 불신과 의심의 대상으로 낙인찍는 모욕적인 조치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일부 부적절한 사례를 이유로 다수의 성실한 전문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이다. 이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를 정교화하기보다 감시와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의 부담을 민간 전문가에게 떠넘기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건축사는 행정의 하청 인력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적 전문가다. 국가가 자격을 부여하고 법적 책임을 지우는 동시에, 그 직무 수행을 인증사진으로 증명하라 요구하는 것은 제도적 자기부정에 가깝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건축사의 서명과 직무에 대한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면 인물 사진이 아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충분하다. 무엇보다 건축사를 감시의 대상이 아닌 행정의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하는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헌법과 상식에 반하는 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단체와 협회 차원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 기고문

## 건축사, 공공의 전문가인가 아니면 행정의 소모품인가

최근 추진되고 있는 「건축물 사용승인 조사·검사 시 대행 건축사 전경사진 제출 의무화」 서식 개정안은 건축 행정의 신뢰 체계를 근본부터 흔들 수 있는 사안으로, 그 도입 취지와 파급효과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는 건축물의 안전성과 법적 적합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이며, 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전문적 판단과 법적 책임을 전제로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제도적 구조는 건축사의 전문성을 신뢰한다는 전제 위에서 성립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경사진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식은 현장 확인 여부를 '증빙 자료' 중심으로 판단하겠다는 행정 편의적 발상에 가깝다. 이는 제도의 본질을 서류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그동안 축적해 온 전문가 책임 행정의 방향성과 배치된다. 건축사의 확인 행위는 단순한 현장 방문 사실의 입증만 아니라, 설계도서와 시공 상태, 법적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고도의 전문 행위다. 이를 사진 한 장으로 대체 가능한 행위로 간주하는 순간, 사용승인 조사·검사 제도의 질적 수준은 형식적 절차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사진 제출이 현장 확인의 충실도를 담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촬영 시점과 범위, 촬영 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형식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이는 오히려 행정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장의 실질적 확인 여부는 서류의 추

가가 아니라 업무 수행 과정의 합리적 관리와 적절한 대가 체계, 그리고 책임 범위의 명확화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건축 행정은 전문가와 행정기관 간의 협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도 설계가 불신을 전제로 이루어질 경우, 업무 수행 과정은 방어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 관리 수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건축사가 수행하는 업무대행은 공공성을 전제로 하는 행정 행위의 연장선에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권한과 책임, 그리고 제도적 존중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추가적인 증빙 서류가 아니라 제도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다. 현장 확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 기준의 명확화, 적정 대가 보장, 교육과 관리 시스템의 개선 등 구조적인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 형식적 통제 장치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건축 행정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렵다.

사용승인 제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이며, 그 핵심에는 건축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다. 이번 개정안이 이러한 제도의 본질적 가치와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가의 책임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 속에서 제도가 마련될 때, 비로소 건축 행정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함께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 형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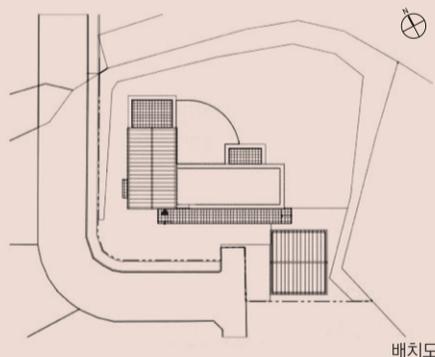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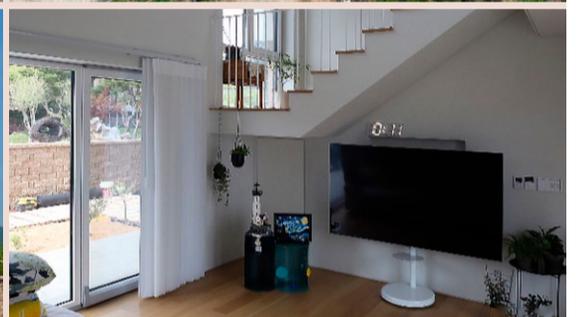
김우철 건축사 / 예감 건축사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5길 10, 2층  
Tel. 063-288-93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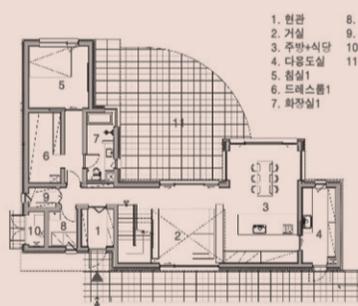


대지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원당동 529-4 / 대지면적 : 992㎡ / 건축면적 : 194.66㎡ / 연면적 : 270.56㎡  
규모 : 지상 2층 / 용도 : 단독주택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 마감 : 벽돌타일, 세라믹타일, 징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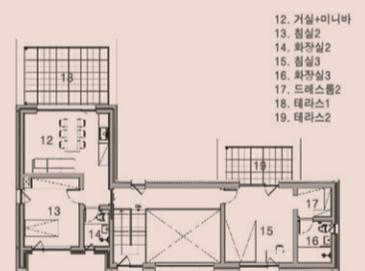
“형연재는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된 주거 건축이다. 1층은 벽돌 타일로 마감하여 시각적 안정감과 친근한 질감을 확보하였고, 2층은 세라믹 패널을 적용해 내구성과 현대적 이미지를 강화하였다. 1층은 거실과 주방 등 공용 공간으로, 2층은 가족의 프라이빗 공간으로 기능을 분리하였다. 남측 일조와 마당의 정원을 적극 활용하여 내부와 외부가 자연스럽게 연계되며, 일상 속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완성하였다.”



배치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 2026년 월정회비 수납기준

▶ 본협회 : 30,000원/월

▶ 도협회 : 80,000원/월

▶ 전주시 : 35,000원/월

▶ 연간 원정회비 회원별 수납기준

구분	본협회	도협회	전주지역 외 회원		전주시	전주지역 회원	
			회비합계	연납시		회비합계	연납시
일반회원	360,000	960,000	1,320,000	1,254,000	420,000	1,740,000	1,653,000
추대회원	회비면제	480,000	480,000	456,000	210,000	690,000	655,500

☞ 당해연도 회비를 3월 31일까지 납부시 5% 경감(※ 단, 전년도 회비 미납 회원의 경우 미납회비 포함하여 납부시 적용)

☞ 월정회비 미납으로 인하여 회원의 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회원님들의 협조 요망.

▶ 전주지역 회원 납부계좌 : 국민은행 512001-04-524314 / 전주지역건축사회

▶ 전주지역 외 회원 납부계좌 : 전북은행 541-13-0320819 /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 전북 익산건축사협회,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 전달

매년 이웃돕기 성금과 연탄 배달 봉사 등 지역 발전에 힘써...



(사진 = 익산건축사협회 제공)

전북 익산건축사협회는 지난달 14일 익산시청을 찾아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다이로움 나눔 공간에 전달된 후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안영목 익산건축사협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회원들과 마음을

모아 성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나눔에 앞장서는 익산건축사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익산건축사협회에 감사드린다”며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지원하는 데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익산건축사협회는 1965년 설립됐으며 익산 지역 건축사사무소 50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매년 이웃돕기 성금과 연탄 배달 봉사를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건강복지센터와 푸른익산가꾸기사업, 사랑장학재단 등에 기부하며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 전북 진안군 건축사모임, 진안사랑장학재단 기부금 400만원 전달

지역 인재 양성·교육 발전 등을 위해 회원들 뜻 모아...



(사진 = 진안군건축사협회 제공)

진안군 건축사모임이 지난 21일 진안사랑장학재단에 기부금 400만원을 전달하며 지역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탰다. 이번 기부는 지역 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학업 여건 개선을 위해 회원들의 뜻을 모아 이뤄진 것으로, 장학금은 진안군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중원 건축사(아진 건축사사무소)는 “진안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우리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과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전주성 진안사랑장학재단 이사장은 “본업으로 바쁜 가운데서도 지역 교육 발전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모아주신 진안군 건축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전달해 주신 소중한 장학금은 학생들이 꿈을 펼치는 데 내실 있게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진안사랑장학재단은 장학금 지급을 비롯해 중학생 해외 역사탐방, 생활과 학교실 운영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며 진안군 관내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 전북 남원지역건축사회,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성금 200만원 기탁

남원지역 회원들 십시일반해 마련...



(사진 = 남원지역건축사회 제공)

전북 남원지역건축사회가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성금 200만 원을 기탁하며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기부 전달식은 지난달 20일 남원시청 부시장실에서 열렸으며, 장근홍 회장과 소주현 총무가 참석해 정성을 담은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남원지역건축사회 회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전문직 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기탁했다.

남원지역건축사회 장근홍 회장은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십시일반 마련한 성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남원지역건축사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탁된 성금은 도움이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 전북대학교, 5년제 건축학 교육 운영 재개

2027년부터 건축공학(4년제)과 건축학(5년제) 전공을 함께 운영...

전북대학교가 중단됐던 5년제 건축학 교육을 다시 시작한다. 변화하는 건축 교육 환경과 건축사 자격 제도에 대응하고, 지역에 필요한 전문 건축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선택이다.

전북대는 최근 학과 정원 조정안을 확정하고, 기존 건축공학과 중심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건축학부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건축공학(4년제)과 건축학(5년제) 전공을 함께 운영하며, 학생들의 진로 선택 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전북대 건축 분야는 한때 4년제 건축공학과와 5년제 건축학과를 병행 운영해 왔으나, 2010년 학과 통합 이후 5년제 과정이 폐지되면서 건축사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학내 교육 여건이 제한돼 왔다. 이번 결정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건축 교육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회복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원 조정에 따라 전북대는 내년부터 건축공학과 정원 50명을 건축공학 전공 35명, 건축학 전공 15명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이후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준비를 거쳐 2027년도부터 5년제 건축학 과정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이번 조치는 학생들이 학내에서 체계적으로 전문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 사회와 건축 현장이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전북건설단체연합회, 김관영 도지사 초청해 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 개최

이성열 회장도 참석해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전북건설단체연합회는 지난달 22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초청해 전북 건설산업 활성화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북건설단체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서 소재철 회장은 민선 8기에서 외지기업의 공장 신축 등에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 산정보조금을 지급토록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과,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최대 2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마련 등 지역 건설업계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소재철 회장은 건설산업이 지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산업이지만 최근 물량 부족과 공사비 부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대형 SOC(사회기반시설) 사업 추진 시 설계 단계부터 적정 규모 분할 발주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도내 14개 국도·국지도 사업이 국토부에서 수립 중인 제6차(2026~2030년)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에 포함돼 있고 대공법을 기반으로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15개 사업)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만큼, 해당 사업이 확정될 경우 대형 SOC 사업이 실제 지역 건설 현장의 일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적정 규모 공구분할’ 추진과 외지 업체가 수주하는 건설공사에도 도내 협력업체와 건설장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이성열 회장은 간담회에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와의 협업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 전북 회원동정

회원현황 : 528명 (2026. 2. 6. 기준)

##### • 입회

- 김갑중 건축사 / (주)수인 건축사사무소 / 익산시 서동로 9, 3층
- 김나연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한별 /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7, 4층 401호
- 이수경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BORN52 / 전주시 완산구 마전들로 52, 3층
- 손우석 건축사 / 노엘 건축사사무소 / 정읍시 충정로 245-1, 2층

##### • 변경(소재지)

- 이길환 건축사 / (주)길종합 건축사사무소이엔지 /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531
- 윤선영 건축사 / 해툼 건축사사무소 / 전주시 덕진구 만성남7길 5, 1층

##### • 부고

- 이동욱 건축사 / 두손모아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2026년 1월 26일(월)
- 임진섭 건축사 / 호남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2026년 2월 3일(화)
- 강문수 건축사 / (주)울그룹 건축사사무소 / 장인상 - 2026년 2월 4일(수)

## 하일렌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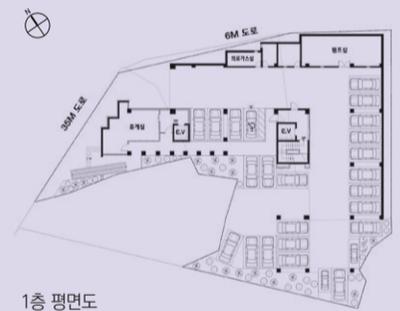
조문송 건축사 / 소울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풍암신흥로50번길 55, 3층  
Tel. 062-374-5963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19번지 / 대지면적 : 1,344.00㎡ / 건축면적 : 804.94㎡ / 연면적 : 4,998.00㎡  
규모 : 지상 9층 / 병상수 : 120병상

“ 병실은 내 집 같이 편안공간으로.  
치료실은 밝게 열린 개방된 느낌으로.  
재실자가 입원 중임을 매 순간 잊고 살 수 있기를.”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4-8층 평면도



9층 평면도

## KCMT와 SK 에코플랜트 가 함께 만들고 세계로 수출하는 친환경 신소재 철근 **KECO-BAR**



### 발주처, 건축주

철근 대비 인장강도 2배  
ESG경영솔루션 (저탄소 제품)  
건물유지보수 비용 절감  
철근콘크리트의 취약점 해소  
내부식성, 비자성, 내화학적,  
부도체 (열차단성)

### 시공사

중대재해 ZERO (낙하, 감전)  
철근 대비 1/4 중량 (경량성)  
획기적인 작업효율 향상  
철근대비 시공 생산성 176%  
물류비 절감  
길이 별 납품 가능 (3m~15m)

### 설계 (VE) 및 경제성 검토 문의 대환영!!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이형철근 대비 예산 절감)
- 한국도로공사 GFRP보강근 설계 의무화 지침 하달
- 국방부 "GFRP보강근" 신기술 우수제품 활용통보
- 공장, 창고, 근생주택, 축사, 수리시설 (농어촌공사), 조선소 (항만) 특화자재

### 건축사

조달청 혁신/우수제품 지정  
친환경 자재 (환경성적표지인증)  
녹색기술 녹색자재 인증  
시설물 생애주기비용 (LCC) 절감

### 근로자

중대재해 예방  
근골격 질환예방 (경량화)  
작업 피로도 감소 (열차단성)  
감전 사고 예방 (비전도성)  
고용효과 증대 (여성, 노년)



목포시 공영주차장



철골구조물 (공장)



근생주택



조선소 노반 기초

### KECO 공식판매처

전국 T. 061-371-1233  
F. 062-971-4896  
M. 010-3484-2886

건축주/건축사/시공사/  
대리점 문의 환영  
[www.kcmt.co.kr](http://www.kcmt.co.kr)

### 광주건축사회 자문위원회, 일본 가고시마 방문

도시·건축 사례 살피며 교류와 공감대 넓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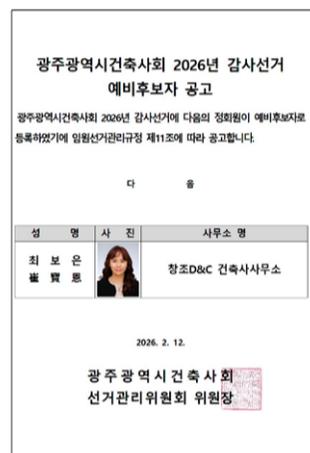
광주건축사회 자문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일본 가고시마를 방문해 현지 도시와 건축 사례를 둘러보며 건축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이번 방문은 자문위원 간 교류를 강화하고 향후 지역 건축문화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자문위원 간 교류와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 광주건축사회 2026년 감사선거 예비후보자 공고

창조D&C 건축사사무소 최보은 건축사 1인 후보 등록



광주건축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명철)는 이달 12일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전 회원 대상 공문·문자를 통해 2026년 광주건축사회 감사선거 예비후보자를 공고했다.

이번 감사선거 예비후보자로는 창조D&C 건축사사무소 최보은 건축사가 단독으로 등록했다.

감사 선출은 인터넷 투표를 거쳐 오는 3월 25일(수) 오전 10시 JS웨딩홀 2층에서 열리는 제39회 광주건축사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최보은 건축사는 1970년생으로 1993년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12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2003년 10월

광주광역시건축사회에 입회했다. 입회 이후 각종 시회 위원회 활동과 2018년 시회 이사를 역임했으며, 광주 건축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다.

###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고시 안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사진 = 광주광역시청 제공)

광주광역시는 기후변화 대응과 2045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개정)」을 지난달 22일 고시·시행했다.

이번 설계기준 개정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기존 기준을 현행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도의 통합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관련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점이 꼽힌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효율·저탄소 건축물 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설계기준 개정을 통해 지역 내 건축물의 친환경 성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고시 또는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261169번을 참조하면 된다.

### 광주 동구 인문학당, ‘로컬 100’ 최종 선정

오래된 주거 건축을 보존·재생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광주 동구에서 운영 중인 인문학당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추진하는 국가 프로젝트 ‘로컬100’ 2기에 선정됐다.

‘로컬100’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생활양식을 담고 있으면서 문화자원을 전국에서 찾아내 홍보와 연계 사업이다.



이번 2기 공모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추천을 통해 약 1,000개의 지역문화 공간과 콘텐츠가 접수됐으며, 1차 심사를 거쳐 200곳이 후보로 오른 뒤 온라인 국민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합산해 최종 100곳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이름을 올린 동구 인문학당은 오래된 주거 건축을 보존·재생활 근대건축의 정취와 현대 건축의 세련된 감각이 한 공간 안에 공존한다.

주민들은 이곳을 통해 강연과 워크숍, 소규모 공연, 생활문화 프로그램 등에 상시로 참여하며 동구 인문학당을 동네의 인문 거점이자 생활 문화 사랑방처럼 이용하고 있다.

### 광주 녹색건축 및 에너지 인증제도 실무 세미나 개최

2월 25일 광주건축사회관서... 에너지절약·제로에너지·BF 인증까지 다뤄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과 광주광역시건축사회가 공동 주최하는 「광주 녹색건축 및 에너지 인증제도 실무 세미나」가 오는 2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주건축사회관 5층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건축사협회 회원사를 비롯해 건설회사, 건설사, 학생 등 녹색건축물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세미나는 녹색건축 및 에너지 관련 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실무 적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기초 실무교육이 진행되며, 2부에서는 ▲공공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및 관련 정책 ▲건축물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주택 개정사항(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포함)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개정사항 및 등급 상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핵심 등 최신 정책과 제도 변화에 대한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261334번을 참조하면 된다.

### 광주 회원동정

회원현황 : 472명 (2026. 2. 6. 기준)

- **입회**
  - 이승태 건축사 / 위트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버들로 29, 2층
- **전입**
  - 나은영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나숨건축 / 광주 북구 독립로367번길 6, 3층
- **전출**
  - 한진수 건축사 / (주)토방 건축사사무소 → 전남 전출
  - 서재형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선 → 전남 전출
  - 최기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유에이 → 전남 전출
  - 오세철 건축사 / 태림종합건축사사무소 → 전남 전출
- **결혼**
  - 정영석 건축사 / (주)디자인그룹마중물 건축사사무소 / 아들 결혼 - 2026년 2월 28일(토)
  - 이왕범 건축사 / 해오름 건축사사무소 / 딸 결혼 - 2026년 1월 31일(토)
- **부고**
  - 김승모 건축사 / 예건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2026년 1월 25일(일)
  - 이규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토지원 / 빙부상 - 2026년 2월 21일(토)



### 이광원&조선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광원



- 전남 영광 출생
- 광주국제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
- 순천시청 건축법점 심의위원
- 전남개발공사 준법감시 위원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선정(2022년)

광주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 변호사 조선희



- 전남 강진 출생
- 전남대 법학과 졸업
- 전남대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수료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
- 현) 광주자치경찰 위원
- 현) 대한변협 대의원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02-2, 3층 T. 062)234-7417



## 흑석동 638

김홍용, 정영진 건축사 / (유)단 건축사사무소  
 전남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5로 29, 2층  
 Tel. 061-392-3212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흑석동 638 / 대지면적 : 1,044.3㎡ / 건축면적 : 359.39㎡ / 연면적 : 1,960.78㎡ / 건폐율 : 34.41%  
 용적률 : 136.01% / 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 마감 : 치장벽돌, 라임스톤, 스타코

1층은 도시와 가장 가까이 맞는 근린생활시설로 계획하여 주변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도록 하였고, 2층과 3층은 주거시설로써 원룸형 주거 공간을 구성하였다. 이 공간들은 1인 가구가 살아가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동선은 간결하게, 수납과 채광, 프라이버시는 충분히 확보하는 데에 목표를 두었다. 작지만 밀도 있는 삶이 가능하도록 공간 하나하나의 역할과 크기를 신중히 조율하였다.

4층과 5층은 사무공간으로 계획하였다. 단순히 내외부가 단절된 업무 공간이 아닌, 외부 공간과 적극적으로 연결되고 자연광과 바람, 도시의 풍경을 끌어들이는 쾌적한 업무 환경을 만들고자 했다. 업무 중에도 외부와의 시선과 휴식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일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머무르고 싶은 공간이 되기를 바랐다. 상부층에서 바라보는 전망 또한 이 건축이 제공하는 중요한 경험 중 하나로 고려하였다.

이 건축은 기능의 적절한 배치와 더불어,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며 만들어간 과정 자체가 공간에 고스란히 담긴 결과물이다. 부부 건축주의 삶과 생각, 그리고 그에 응답한 설계의 흔적들이 이 건물 곳곳에서 조용히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배치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4층 평면도

### 전남건축사회, 365에이스치과 진료협력병원 업무협약 체결 회원, 회원사 임직원, 직계가족 다양한 할인 제공...



전남건축사회는 지난 1월 13일 전남건축사회 회관에서 365에이스치과와 임플란트 진료비 할인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남건축사회 회원과 회원사 임직원, 그리고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진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회원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365에이스치과는 전남건축사회 소속 회원과 임직원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임플란트 치료를 제공하고, 전라남도건축사회는 회원들에게 해당 혜택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전라남도건축사회 이경일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과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전남건축사회, 전라남도와 재난피해주택 신속 지원 업무협약 체결 재난 피해 주택 신속 시, 설계·감리비 감면 부담완화...



전라남도는 재난 피해 주택의 신속한 복구와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28일 전라남도 건축사회 간에 진행됐으며, 재난으로 피해 입은 주택을 신속 시 건축 설계 및 감리비를 50% 감면해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주택 복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건축사회 이경일 회장은 "앞으로도 재난 대응과 복구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건축사회는 재난 피해 지원을 비롯해 공공건축 자문, 지역 건축문화 확산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목포지역건축사회 - 목포대학교 RISE사업단 업무협약식

건축 분야 발전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사진 = 목포대 제공)

국립목포대 RISE사업단과 대한건축사협회 목포지역건축사회는 지난 19일 지역 건축 분야의 발전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성환 RISE사업단 부단장을 비롯해

박성진·김태희 교수, 목포지역건축사회 박재봉 회장, 이승현 부회장, 김정 기획예산위원장, 이길배 법제위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건축 분야 산업 현장의 애로기술에 대한 기술지원 및 기술 교류 ▲산학 공동연구 및 전문기술인력 공동 양성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 교육 지원 ▲산업·기술 관련 정보의 상호 제공 등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 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국립목포대 김성환 RISE사업 부단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지식과 기술 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건축 분야의 상생 발전을 이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지역건축사회 박재봉 회장은 “이번 산학협력이 회원들의 직무 역량 강화는 물론, 지역 건축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전남 나주시, 도시경관 개선 위해 나주지역건축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재난주택 신축·빈집정비 지원... 신축 설계, 감리비 50% 감면 지원



(사진 = 나주시 제공)

전남 나주시가 나주지역건축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주거 안정과 도시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나주시는 지난 27일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과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 나주지역건축사

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가는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주민을 대상으로 부속 건축물을 포함해 연면적 150㎡ 이하 주택을 건축할 경우 설계 및 감리 비용의 50%를 감면 지원한다.

또한 올해 빈집정비사업 대상 건축물에 한해 해체계획서 검토 비용 50% 감면에 뜻을 모았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대상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전문가의 해체계획서 검토가 의무화돼 있어 그동안 비용 부담과 행정 절차에 대한 불편이 지속됐다. 나주시는 올해 100여건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 참여율과 추진 속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박종호 나주지역건축사회장은 “지역 건축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돕고 빈집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훈모 나주시 건축허가과장은 “이번 협약이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빈집정비사업의 걸림돌이었던 해체계획서 검토 비용 부담을 완화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 전라남도, ‘우수건축물 전시회’ 개최

오는 27일까지 도청 갤러리에서...



전라남도는 도시 미관 향상과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도청 갤러리에서 ‘전라남도 우수건축물 전시회’를 열어, 최근 4년간 선정된 수상작을 통해 생활 속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도민과 공유한다.

전시회에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선정된 우수건축물 가운데 대상 1점, 최우수상 4점, 우수상 7점 등 총 20점의 수상작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전남도는 매년 지역의 우수건축물을 선정해 건축주에게는 도지사 표창과 기념동판, 설계자와 시공자에게는 도지사 표창과 상패를 수여하며 건축문화 발전을 장려하고 있다.

전시 작품은 지역의 건축적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관광 활성화와 지역 이미지 제고 등 지역 발전에도 기여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도민 이용 빈도가 높은 공공건축물까지 평가 대상을 확대한 결과, 공공 부문에서 처음으로 대상 수상작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앞으로 22개 시군 순회 전시를 통해 도민과의 접점을 넓히고, 지역 건축의 우수성과 건축문화의 가치를 현장에서 공유할 계획이다.

임진출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우수건축물 전시회를 통해 지역 건축의 성과와 가치를 도민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건축이 생활 속 문화로 자리 잡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무안군, ‘공간정보통합플랫폼’ 본격 운영

부동산종합, 건축행정, 도로명주소 등 주요 행정시스템과 연계해...

전라남도 무안군은 ‘무안군 공간정보통합플랫폼’ 구축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에 구축된 공간정보통합플랫폼은 도로, 상·하수도, 공공시설물 등 군 전반의 공간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부서 간 정보 공유와 활용을 강화해 보다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플랫폼에 탑재된 ‘나만의 지도’ 기능을 활용하면 부서별로 보유한 공간정보를 손쉽게 등록·관리·공유할 수 있어 현장 중심의 업무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부동산종합공부, 건축행정, 도로명주소 등 주요 행정시스템과 연계해 관련 정보를 한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구통계 자료와 시설물 위치 정보를 결합한 공간분석 기능도 제공한다.

## 전남 회원동정

회원현황 : 464명 (2026. 2. 6. 기준)

### • 입회

- 김미정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윤솔 / 전남 나주시 우정로 106, 나주혁신도시스타타워 2층 제비210호
- 하경우 건축사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창 / 전남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로 48, 302호
- 장진남 건축사 / (주)유림 건축사사무소 / 전남 해남군 해남읍 북부순환로 112, 303호
- 장순모 건축사 / 다해드림 건축사사무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29, 4층
- 송세훈 건축사 / 우당 종합건축사사무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6, 2층

### • 재입회

- 장 한 건축사 / 한 건축사사무소 / 전남 순천시 왕지4길 3-14, 302호

### • 전입

- 한진수 건축사 / 토방 건축사사무소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유신동길 34-1
- 서재형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선 /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문길 30, 2층
- 최기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유에이 / 전남 함평군 해보면 밀재로 1298-1

### • 변경(소재지)

- 이광영 건축사 / 리가 건축사사무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19, 2층
- 김동인 건축사 / 김동인 건축사사무소 / 전남 순천시 왕지4길 5
- 고미라 건축사 / 케이엠 건축사사무소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서산길43 상가동3층 301호
- 김현종 건축사 / 로템나무 건축사사무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45, 에스비 빛가람빌딩 2층 203-5호

### • 결혼

- 윤정환 건축사 / 신흥 건축사사무소 / 자녀 결혼 - 2026년 1월 18일(일)
- 박재영 건축사 / 이공 건축사사무소 / 자녀 결혼 - 2026년 2월 22일(일)

### • 부고

- 손미애 건축사 / 예림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2026년 1월 2일(금)
- 이진희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지니 / 시모상 - 2026년 1월 5일(월)
- 이창국 건축사 / 창조 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2026년 1월 5일(월)



고객을 기쁘게 세상을 이롭게  
반석기초이앤씨(주)

New, Different, Better

호남지사장 / 이사 김유성

010. 5007. 8437 | 3rsinhwa@hanmail.net

전화 070-4482-0257 팩스 062-975-014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 A동 1114호(오룡동)

INNOBIZ기업 | ISO 9001인증

본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고재로 141-16  
전화 031-577-1673 팩스 031-577-1674

www.bs-base.co.kr

GeoCon (방재신기술) 팽이기초공법  
침하지반보강/복원 로타리파일(헬리컬)  
EcoSM 지반개량 강관압입파일  
마이크로파일



한 편의 시 \_ 濟堂 추원호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봄날은 저만치

늘 푸른 바다 위로 둥근 해 떠오르니  
잔잔한 금빛으로 내게로 다가오네  
마음분 열어젖히고 두 팔 벌려 감싼다

해변의 풀잎들도 기쁜 듯 춤을 추니  
바닷속 고기들도 기쁘리 흔들면서  
동그란 눈동자 속에 그림자가 어리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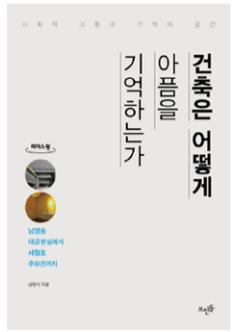
입춘날 지나가고 봄날을 생각하니  
움츠린 마음가짐 가볍게 펼쳐지네  
연이은 겨울 추위도 봄기운에 떠나겠지.



책 소개 \_ 김다현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과(5년제)

건축은 어떻게 아픔을 기억하는가

김명식 / 뜨인돌 / 2020. 09. 29.



우리는 건축을 흔히 기능적 구조물이나 미적인 대상으로 인식하지만, <건축은 어떻게 아픔을 기억하는가>는 건축이 사회의 고통과 기억을 어떻게 품고 기록하는지를 질문하는 책이다. 이 책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과 상처가 남아 있는 공간들을 직접 답사하며, 그 장소들이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현재에도 작동하는 '기억의 공간'임을 보여준다. 저자는 건축가의 시선으로 공간의 구조와 배치, 동선과 재료를 분석하는 동시에, 그 공간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책에서 다루는 주요 장소들은 남영동 대공분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평화의 소녀상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서소문 순교성지, 세월호 추모공간 등이다. 이 공간들은 모두 국가 폭력, 전쟁 범죄, 사회적 참사 등 한국 사회가 반복적으로 마주해 온 고통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 저자는 이 장소들을 단순한 추모 공간이나 역사 유적으로 다루지 않고, 고통이 공간화되고 건축화되는 과정을 면밀히 살핀다. 이를 통해 건축이 기억을 은폐하거나 증폭시키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공감과 성찰을 이끄는 장치가 될 수도 있음을 드러낸다. 특히 남영동 대공분실에 대한 분석은 건축이 어떻게 인간의 심리와 신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좁은 창문의 크기와 개수,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만드는 나선형 계단, 외부에서만 열 수 있는 문, 소리를 흡수하면서도 고문을 은폐하는 구조 등은 모두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건축적 요소들이다. 이 공간이 한국 현대건축을 대표하는 건축가에 의해 설계되었다는 사실은, 건축가의 윤리와 건축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문제를 함께 제기한다.

평화의 소녀상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다룬 장에서는 고통의 기억이 어떻게 상징과 동선을 통해 시각화되는지가 설명된다. 소녀상의 조형적 요소와 설치 장소의 의미, 박물관 내부의 전시 동선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삶을 개인의 서사가 아닌 사회적 기억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저자는 이를 '기억이 만들어낸 건축적 공간'으로 정의하며, 이 공간이 단순한 추모를 넘어 역사적 책임과 현재적 질문을 지속적으로 호출한다고 말한다.

서대문형무소와 서소문 순교성지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근대적 감시 체계인 파놉티콘 구조와 처형 공간의 배치가 설명된다. 이 과정에서 특정 종교나 집단의 기억으로 환원되기 쉬운 장소가 아니라, 다양한 역사적 층위를 지닌 '공통의 기억 공간'으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드러난다. 이는 기억의 장소를 어떻게 해석하고 재현할 것인가에 대한 건축적·사회적 논의로 확장된다. 책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세월호 추모공간은 '공간이 고통을 어떻게 감싸 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시한다. 노란 리본으로 가득 채워진 이 공간은 비극을 직접적으로 재현하기보다, 상실을 공유하고 위로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이를 통해 건축이 반드시 차가운 기념비일 필요는 없으며, 따뜻한 감각을 통해 공감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건축은 어떻게 아픔을 기억하는가>는 건축을 미학이나 기술의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 고통을 기억하고 공감하는 장치로 확장시킨다. 이 책은 공간이 과거의 기록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태도를 요구하는 존재임을 강조한다. 건축은 결국 국 사람과 사회를 향한 책임을 지니며, 기억의 공간은 반복되지 말아야 할 역사를 끊임없이 호출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드러내는 책이다.

한 장의 사진 \_ 이동희 교수 작 / 순천대학교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충청남도 홍성군 / 2026년 2월 12일

## 광고 및 이메일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구독료 : 무료
- 후면 외 전면광고 : 500,000원
- 구독신청 방법 : 성명, 이메일 주소 작성 후 gjkira@empas.com 발송
- 하단광고 : 250,000원
- 하단1/2광고 : 150,000원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 보성읍 다함께 상생센터 건립사업 건축 설계공모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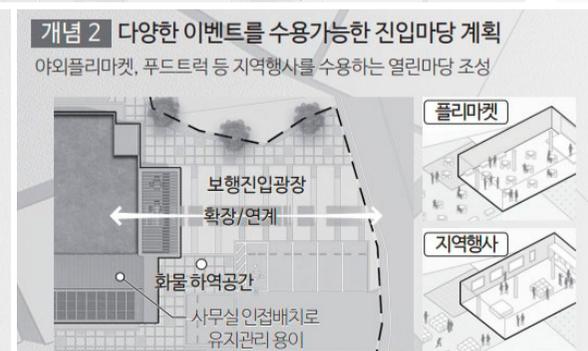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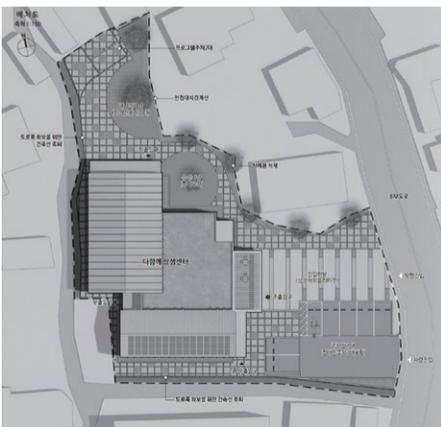
보성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하여 「다함께 상생센터」를 건립함에 따라 창의적인 디자인과 우수한 기능을 갖춘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건축 설계공모를 공고함.

심사위원 : 신현익(금오공과대학교), 김태원(CND 건축사사무소), 염은선(시담 건축사사무소), 윤정태(췌에이치엔에이 건축사사무소), 김미선(동신대학교)

- 대지위치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리 143 외 6필지
- 대지면적 : 1,518㎡
- 연 면 적 : 816㎡(전용 및 공용면적 ±5%, 연면적 초과 할 수 없음)
- 규 모 : 지상 2층
-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당선작**

봉환성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에이아이



# 과하지 않게, 오래 남게 - 일상에 스며드는 건축을 향해

## 사월 건축사사무소 박형주 건축사와의 만남



박형주 건축사(광주)

건축문화사랑 '건축사 인터뷰'는 광주·전남·전북 지역 건축사들의 걸어온 이야기를 전한다. 삶의 에피소드와 건축사사무소 창업기 및 앞으로의 포부를 동료이자 선후배 건축사들에게 전하여 소속감과 연대의 가치를 느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 Q. 건축사사무소 개소 소감,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같은 해 7월 사무소를 개소하였습니다. 아직 개소한 지 오래되지 않아 인터뷰가 다소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합격 직후에는 바로 개소하기보다는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건축 경기가 좋지 않아 직원을 채용하는 사무소가 많지 않았고, 여러 고민 끝에 지금의 시기에 시작해보자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경기에 시작하는 길 이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의 시간을 버텨낸다면 앞으로 더 어려운 시기를 마주하더라도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개소 이후에는 설계뿐 아니라 행정, 계약, 현장 대응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해야 해 생각보다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씩 부딪히며 배우는 과정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아직은 작은 사무소이지만, 그만큼 각 작업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지금의 저에게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책임의 무게를 실감하면서, 가족들의 응원과 선배 건축사님들의 조언을 통해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 Q. 건축사사무소 이름명을 만들 때 어떤 의미를 두고 하신건지 궁금합니다.

사무소 이름에는 거창한 의미보다 제가 지향하는 태도를 담고자 했습니다. 4월처럼 따뜻하지만 과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오래 남는 건축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유행이나 형식보다도 사용자에게 부담되지 않고,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공간을 만드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 Q. 건축사로서 어떤 꿈과 비전이 있을까요.

아주 큰 꿈보다는, 맡은 공간을 성실하게 완성해 나가는 건축사가 되고자 합니다. 사무소의 규모를 키우기보다는 하나의 프로젝트라도 끝까지 책임감 있게 완성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불편함 없이 오래 머물 수 있는 건축, 시간이 지나도 쉽게 낯지 않는 건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가며, '이 사람에게 맡기면 믿을 수 있다'는 말을 듣는 건축사가 되고 싶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여가며 설계의 밀도를 조금씩 높이고, 조금해지기보다는 꾸준히 이어가는 건축을 지향합니다.

### Q. 건축사 외에 다른 꿈이있었나요.

어릴 때는 건축사가 되겠다는 목표가 비교적 분명했지만, 지금은 '언제까지 건축 설계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던지게 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시가 빠르게 일상에 스며드는 시대인 만큼 앞으로의 건축사 역할과 일의 방식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2의 직업을 갖기보다는, 다른 분야에 대한 경험과 관심을 넓혀 그것을 설계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를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건축이라는 틀 안에 머무르되, 시야는 열어두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지속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 Q. 앞으로의 계획과 선·후배 동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는 AI를 업무에 적용해 보기 위해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건축주와 설계에 관해 보다 원활하게 소통하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혼자서 감당해야 할 일이 많은 직업이지만, 선·후배 동료 건축사들과의 연결이 큰 힘이 되고 늘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응원할 수 있는 관계가 오래 이어지기를 바라며, 저 또한 경험을 쌓아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선배 건축사로 성장해 나가하고자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건축을 이어가고 있는 모든 분들께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월 건축사사무소 사무실 내부



나주시 근린생활시설



수원동 단독주택



완도군 근린생활시설

### 회원알림

최근 광주·전남·전북 지역 내 건축사사무소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유사한 요청을 받을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피해사례-1

설계, 입찰공고 업무 등과 관련하여 접근한 후, 특정 업체 물품을 대리 구매해달라며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

#### 주요 피해사례-2

학교나 관공서 관계자를 사칭하여 명함을 발송한 후, 제3의 업체 물품을 정가보다 싸게 납품받아 수요기관으로 대납하는 것처럼 속여 결제를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공공기관 다른 업체 물품을 대리구매 요구하는 수법